



시큐리티 연구 팬데믹 특별호

ISSN : 2671-4299(Print)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영향 - 112 신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

임형진, 김정림

To cite this article : 임형진, 김정림 (2020)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영향 - 112 신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 시큐리티 연구, , 233-254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 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KSA

임 형 진 · 김 정 림

[illegible]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영향 - 112 신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

임 형 진* · 김 정 림**

〈요 약〉

이 연구는 112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2개월간의 월별 112 신고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그래프가 단계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1단계로 전반적인 범죄 발생 추세 확인 후, 2단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범죄 발생 추이가 비교되고, 3단계로 확대한 그래프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이 연구는 전체범죄, 강도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코로나19가 전체범죄에는 ‘약한 감소’, 강도범죄에는 ‘약한 증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에는 ‘감소’라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도범죄의 ‘약한 증가는 미국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범죄학 이론(기회이론)에 따를 때 코로나19가 많은 범죄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 등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범죄에 대한 영향은 개별범죄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예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증가하는 범죄(예: 강도, 가정폭력)에 경찰력 등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코로나19, 전체범죄, 강도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제1저자)

** Mercy College Criminal Justice 교수 (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 론

I. 서 론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¹⁾ 이후 빠르게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7월 5일 현재까지 매일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전염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은 우리사회의 변화, 우리 일상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가 초래한 변화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법 관련 분야(김제완, 신송이, 최예린, 2020; 김진우, 2020; 맹수석, 2020), 관광 분야(김동준, 최현준, 조환기, 김광용, 2020; 하정우, 김창수, 2020; 홍민정, 오문향, 2020), 철학·신학 분야(강철, 2020; 유경동, 2020; 윤성민, 2020), 보건 분야(고광욱, 2020; 이무식, 2020; 이승화, 김종명, 2020)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박한호, 2020; Mohler et al., 2020). 그 중 국내연구(박한호, 2020)는 범죄와 관련된 사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고, 해외 연구(Mohler et al., 2020)는 112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1) 동아일보(2020, 1, 20). 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 첫 발생...우한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0/99322845/2>, 검색일 2020. 7. 5.

있으며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국내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112 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다. 첫째, 연구의 필요성 확인 및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을 수행하였다. 둘째,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연구내용이 정리되고, 선행연구와 비교되었으며, 정책적 제언,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이 범죄에 미친 영향을 학술적으로 의미 있게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염병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정책적 제언을 통해 경찰 등 범죄예방기관의 활동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고찰

1) 코로나19 관련 연구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연구는 일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즉, 법 관련 분야, 관광 분야, 철학·신학 분야, 보건 분야에서만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관련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보험상쟁점(맹수석,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김제완 등, 최예린, 2020), 독일의 코로나계약법이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김진우, 2020) 등이 연구되었다.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관광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하정우, 김창수, 2020), 국내 잠재 관광객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보이는 감정반응(홍민정, 오문향, 2020),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산업 발전방안(김동준 등, 2020) 등이 연구되었다.

한편 철학·신학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상예배를 위한 방법(윤성민,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소통의 방식(강철, 2020), 코로나19 상황 이후의 신앙(유경동, 2020) 등이 연구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신체활동 수칙(고광욱, 2020),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의 행동수칙(이무식, 2020),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과 치료(이승화, 김종명, 2020) 등이 연구되었다.

2) 코로나19와 범죄

코로나 19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박한호(2020)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한호(2020)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코로나 19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명령, 자택근무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이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일상의 변화는 일부 범죄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하였다. 반대로, 그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Mohler 등(2020)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와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의 경찰신고 전화(911)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는 주거침입절도, 강도, 차량정지 범죄가 감소하였으나 가정폭력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인디애나폴리스 지역에서는 차량정지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가정폭력 범죄는 역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 관련 범죄학 이론

1) 일상활동이론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가 보호자가 없는 적절한 목표물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면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Cohen & Felson, 1979). 일상활동이론에 따를 때, 사람들의 일상활동은 범죄기회를 제공하여 범죄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일상활동의 변화는 범죄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는 일상활동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활동을 변화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었고, 그로인해 사람들 간에 만남이 줄어들었으며, 가정에서 생활은 많아졌다. 따라서 가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범죄(강도, 절도, 폭력)의 기회는 감소하고,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가정폭력)의 기회는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줄어들 것이고,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증가할 것이다.

2)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그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비록 제한적이지만) 선택을 한다는 이론이다(Clarke & Cornish, 1985; Cornish & Clarke, 1986). 즉, 범죄자는 범죄에 대한 선택, 범죄대상에 대한 선택, 범죄방법에 대한 선택, 범죄과정에서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으로(즉, 그에 따른 이익과 비용을 따져) 결정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고, 그로인해 사람들 간에 만남이 줄어들었으며, 가정에서 생활은 많아졌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수입의 감소로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강도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흉기 등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한다면 경찰에게 잡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의 선택으로 강도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3) 범죄패턴이론

범죄패턴이론은 범죄는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있으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통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Brantingham & Brantingham, 1993, 1999, 2003). 범죄패턴이론에서는 교차점(nodes), 행로(paths), 가장자리(edges), 범죄발생지(crime generator), 범죄유혹지(crime attractor) 개념을 강조하면서 주로 이러한 장소에서 범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교차점은 사람들의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는 허브를 의미하고(예: 학교, 집, 직장, 식당 등), 행로는 교차점을 연결하는 길을 의미하며, 가장자리는 교차점과 행로의 주변을 의미한다. 한편 범죄발생지(crime generator)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 외의 목적으로 모이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며(예:

쇼핑몰, 유원지 등), 범죄유혹지(crime attractor)는 범죄기회를 생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예: 마약시장 등).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는 범죄패턴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고, 그로인해 사람들 간에 만남이 줄어들었으며, 가정에서 생활은 많아졌다. 즉, 대부분의 교차점, 행로, 가장자리, 범죄발생지, 범죄유혹지에서의 사람들의 일상활동이 줄어들면서 범죄기회가 줄었으며 이는 범죄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교차점의 하나인 가정에서의 일상활동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범죄기회가 늘어났으며, 이는 가정폭력 같은 가정 내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범위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을,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한국에서 코로나가 문제된 2020년 1월 이전 3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 6월 까지를 연구범위로 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범위의 결정에는 범죄 관련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지역적 한계와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가장 적절한 기간이 고려되었다.

2. 데이터

이 연구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일 한국 전 지역에서 경찰에 신고된 112 신고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112 신고 데이터는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경찰업무, 타기관 업무로 구분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중요범죄와 기타범죄 데이터만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식 범죄데이터 대신 112 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이유는 112 신고 데이터가 가진 장점 때문이다. 112 신고 데이터는 오인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부정확

할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진 많은 장점으로 인해 종종 범죄발생 건수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Sherman et al., 1989). 그 장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12 신고 데이터는 범죄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데 정확하다(Pierce et al., 1984). 둘째, 많은 범죄가 경찰 또는 검찰의 결정에 의해 빠져 나갈 수 있는 공식 범죄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Black, 1970). 마지막으로, 공식 범죄데이터에 비해 빠르게 통계처리가 가능하다. 112 신고 데이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와 동시에 통계처리가 가능하나, 공식 범죄 데이터는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를 거쳐야 정확한 통계처리가 가능하므로 그 생산속도가 느리다는 한계가 있다.

3. 변수

이 연구를 위해 몇 가지 변수가 사용되었다. 첫째, 전체범죄이다. 이 변수는 코로나19의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영향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여기에서 전체범죄는 중요범죄와 기타범죄를 합친 것이다. 중요범죄에는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포함된다. 기타범죄에는 폭력, 사기, 공갈, 협박, 도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수배불심자, 기타형사범, 스토킹, 학교폭력, 마약류, 피상사기가 포함된다. 둘째, 강도범죄이다. 이 변수는 코로나19의 강도범죄에 대한 영향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셋째, 절도범죄이다. 이 변수는 코로나19의 절도범죄에 대한 영향 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폭력범죄이다. 이 변수는 코로나19의 폭력범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1>은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2개월 동안 월별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최소 191,660건에서 최대 272,722건이었으며, 평균은 238,237건이었다. 월별 강도범죄 발생 건수는 최소 31건에서 최대 191건이었으며, 평균은 82건이었다. 월별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최소 16,775건에서 최대 27,541건이었으며, 평균은 21,834건이었다. 월별 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최소 36,448건에서 최대 64,322건이었으며, 평균은 49,828건이었다.

〈표 1〉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범죄	42	191,660	272,722	238,237	22,227
강도범죄	42	31	191	82	40
절도범죄	42	16,775	27,541	21,834	2,843
폭력범죄	42	36,448	64,322	49,828	7,231

4.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시계열 그래프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시계열 연구가 적합하며, 또한 시계열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들의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론 도출을 위해 단계적 분석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월별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추이 분석이다. 이 분석은 해당 기간 동안 전반적인 범죄 발생 추세를 보면서, 코로나19가 범죄 발생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범죄 발생 추이 비교이다. 이 분석은 코로나19가 진행된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와 그 이전 3년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마지막 단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범죄 발생 추이 변화를 확대한 그래프 활용 분석이다. 이 분석은 상반기 월별 범죄 발생 추이 비교를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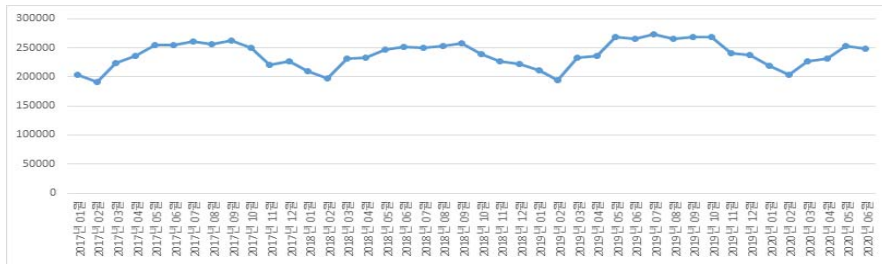
IV. 분석결과

1. 코로나19가 전체범죄에 미친 영향

코로나 19가 전체범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전체범죄에 대한 112 신고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1]은 해당 기간 동안 월별 전체범죄 발생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며, 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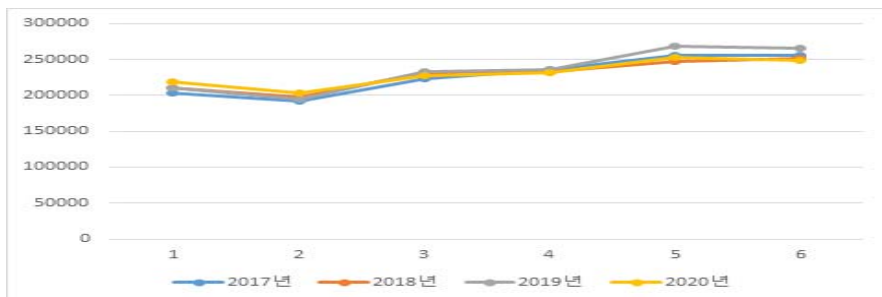
해당 기간 동안 전체범죄는 겨울(12월, 1월, 2월)에는 비교적 적게 발생하다가 봄(3월, 4월, 5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여름(6월, 7월, 8월)에는 비교적 많이 발생하다가 가을(9월, 10월, 11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문제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도 역시 그와 같은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연도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림 1]만으로는 코로나19가 전체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전체범죄 발생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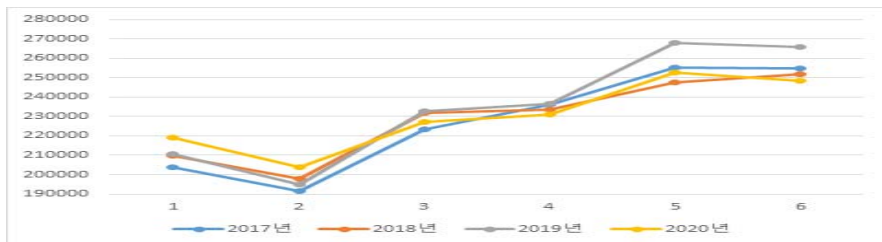
[그림 1] 2017-2020년 월별 전체범죄 발생 추이

[그림 2]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전체범죄 발생 추이를 보여주며, 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범죄는 상반기에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20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해당 부분을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전체범죄 발생 추이 비교(1)

[그림 3]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전체범죄 발생 추이 변화를 조금 더 확대한 그래프이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2020년 1월과 2월에는 이전 3년에 비해 다소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2020년 3월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은 변화하였다. 즉, 3월과 5월에는 이전 3년 동기간 대비 3번째로 적은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4월과 6월에는 이전 3년 동기간 대비 가장 적은 범죄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체범죄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작게나마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2020년 1월과 2월에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던 전체범죄가 2020년 3월부터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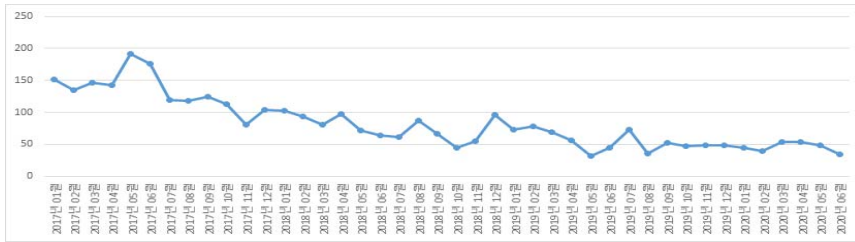
[그림 3]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전체범죄 발생 추이 비교(2)

2. 코로나19가 개별 범죄에 미친 영향

1) 코로나19가 강도범죄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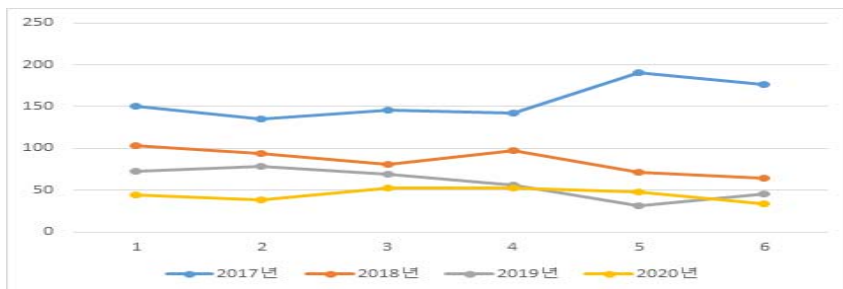
코로나 19가 강도범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강도범죄에 대한 112 신고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4]는 해당 기간 동안 월별 강도범죄 발생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며, 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기간 동안 강도범죄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2017년 상반기에 매월 150여건 정도 발생하던 강도범죄는 계속 감소하여 2020년 상반기에는 매월 50여건 정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림 4]만으로는 2020년 상반기 강도범죄의 감소가 코로나19의 영향인지 아니면 과거의 추세를 따른 것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강도범죄 발생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4] 2017-2020년 월별 강도범죄 발생 추이

[그림 5]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강도범죄 발생 추이를 보여주며,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도범죄는 매년 감소하였다. 즉, 월별 비교 시, 5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서 2017년부터 2020년으로 갈수록 강도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즉,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강도범죄가 계속 감소하였으며, 월별 비교 시 그 감소 정도도 대체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조금 다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강도범죄 발생건수를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0년에는 1월과 2월에는 차이가 있었으나(즉, 과거의 추세를 따르고 있으나) 이후 점점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강도범죄의 감소추세가 꺾였을지도 모른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코로나19가 강도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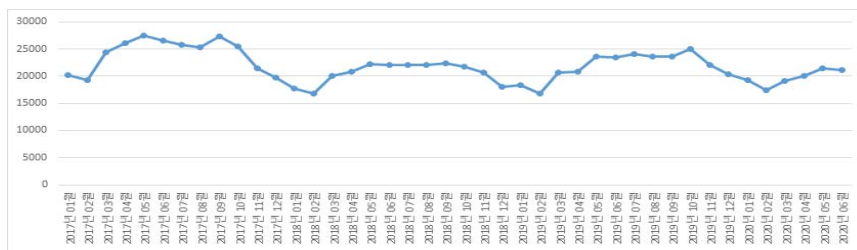
[그림 5]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강도범죄 발생 추이 비교

2) 코로나19가 절도범죄에 미친 영향

코로나 19가 절도범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절도범죄에 대한 112 신고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6]은 해당 기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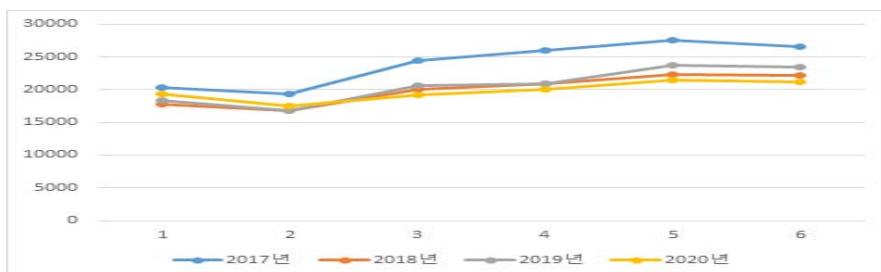
월별 절도범죄 발생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며, 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기간 동안 절도범죄는 겨울(12월, 1월, 2월)에는 비교적 적게 발생하다가 봄(3월, 4월, 5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여름(6월, 7월, 8월)에는 비교적 많이 발생하다가 가을(9월, 10월, 11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문제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도 역시 그와 같은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연도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림 6]만으로는 코로나19가 절도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절도범죄 발생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6] 2017-2020년 월별 절도범죄 발생 추이

[그림 7]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절도범죄 발생 추이를 보여주며, 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절도범죄는 상반기에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20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 뚜렷한 특이점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해당 부분을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7]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절도범죄 발생 추이 비교(1)

[그림 8]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절도범죄 발생 추이 변화를 조금 더 확대한 그래프이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2020년 1월과 2월에는 이전 3년에 비해 다소 많은 절도범죄가 발생하였으나 2020년 3월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은 변화하였다. 즉, 3월부터는 이전 3년 동기간 대비 가장 적은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2020년 1월과 2월에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던 절도범죄가 2020년 3월부터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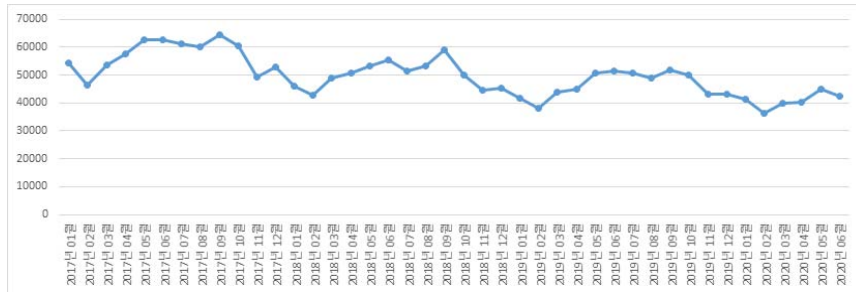


[그림 8]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절도범죄 발생 추이 비교(2)

3) 코로나19가 폭력범죄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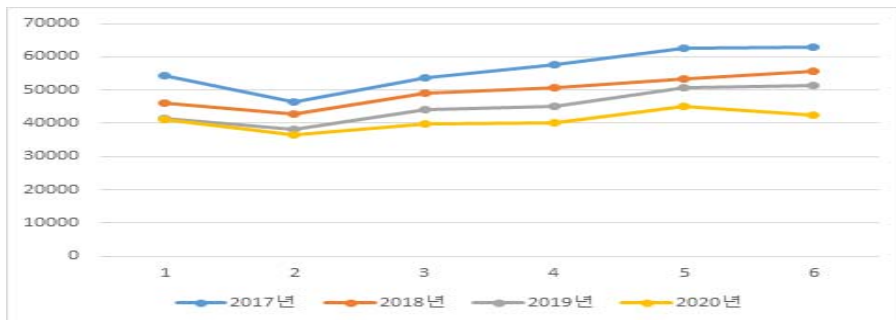
코로나 19가 폭력범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폭력범죄에 대한 112 신고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9]는 해당 기간 동안 월별 폭력범죄 발생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며, 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기간 동안 폭력범죄는 겨울(12월, 1월, 2월)에는 비교적 적게 발생하다가 봄(3월, 4월, 5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여름(6월, 7월, 8월)에는 비교적 많이 발생하다가 가을(9월, 10월, 11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문제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도 역시 그와 같은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연도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림 9]만으로는 코로나19가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폭력범죄 발생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9] 2017-2020년 월별 폭력범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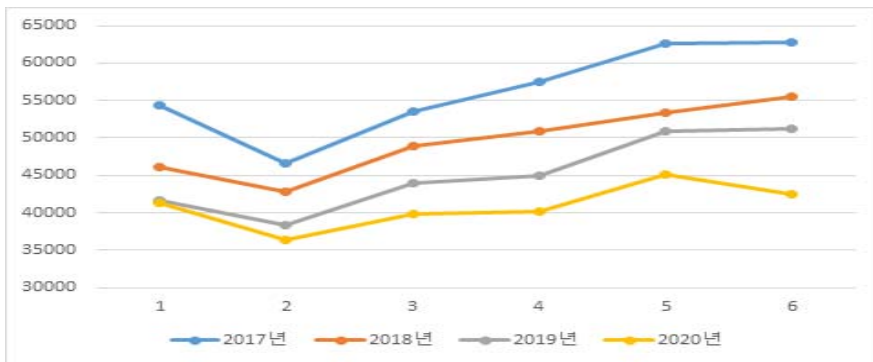
[그림 10]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폭력범죄 발생 추이를 보여주며, 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폭력범죄는 상반기에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20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해당 부분을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0]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폭력범죄 발생 추이 비교(1)

[그림 11]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폭력범죄 발생 추이 변화를 조금 더 확대한 그래프이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2020년 1월에는 2019년과 비슷한 정도의 폭력범죄가 발생하였으나 2020년 2월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은 변화하였다. 즉, 2020년 2월부터는 2019년에 비해 더 적은 폭력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 차이는 갈수록 커졌다. 결론적으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영향

을 미쳤으며, 그 결과 2020년 1월에 2019년 1월과 비교하여 비슷하게 발생하던 폭력 범죄가 2020년 2월부터는 2019년에 비해 더 적게 발생하고, 그 차이는 갈수록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1] 2017-2020년 상반기 월별 폭력범죄 발생 추이 비교(2)

V. 결 론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코로나19가 전체범죄에는 ‘약한 감소’, 강도범죄에는 ‘약한 증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에는 ‘감소’라는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가 절도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가 주거침입절도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Mohler et al., 2020)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활동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었고, 그로인해 사람들 간에 만남이 줄어들었으며, 가정에서 생활이 많아졌다. 사람들의 가정 밖 활동의 감소로 가정 외부에서의 절도범죄 기회가 감소하였고, 또한 사람들의 가정 내 생활의 증가로 주거침입절도 기회도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절도범죄는 감소하였다.

둘째, 코로나19로 강도범죄가 약한 증가를 보였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가 강도범죄를 감소시켰다는 선행연구(Mohler et al., 2020)의 결과와 배치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달라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합리적 선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부는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많은 가정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범죄인에게 많은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미국의 범죄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거리의 행인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강도범죄의 기회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것이 코로나19로 미국에서 강도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가정에 총기가 없다. 따라서 범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저지르는 것이나 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위험부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의 범죄인들은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한 강도의 기회 감소를 대신하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범죄를 더 많이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코로나19로 한국에서 강도범죄가 약한 증가를 보였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셋째, 코로나19로 폭력범죄가 감소되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가 가정폭력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Mohler et al., 2020)의 결과와 배치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상활동이론과 범죄패턴이론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코로나19로 가정 밖 생활은 줄었으나, 가정 내 생활은 늘어났다. 따라서 가정 밖 폭력범죄에 대한 기회는 감소되었으며, 가정 내 폭력범죄에 대한 기회는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폭력범죄는 감소하였으나 가정폭력은 증가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범죄학 이론에 따를 때 코로나19가 많은 범죄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 등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의 범죄에 대한 영향은 개별범죄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예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증가하는 범죄(예: 강도, 가정폭력)에 경찰력 등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시계열 그래프만으로 분석하였고 추론통계를 활용한 증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이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예: 코로나 확진자 수, 거리두기 강도 등)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해 그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기존에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코로나 19와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특히, 112 신고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한 최초의 국내 연구이다. 둘째,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시의성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추론통계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범죄에 대한 영향을 증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예: 코로나 확진자 수, 거리두기 강도 등)를 고려하면서, 코로나19와 범죄와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가정폭력, 성폭력, 사기,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개별범죄들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철 (202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메시지는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가?: 격리 중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 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 중심으로. **신학과실천**, 69, 67-89.
- 고광옥 (202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활동수칙.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109-112.
- 김동준, 최현준, 조환기, 김광용 (2020). 코로나팬데믹 이후 관광산업 발전방안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9(4), 129-144.
- 김제완, 신송이, 최예린 (2020). 코로나19 특별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호: 캐나다의 퇴거 집행 유예(eviction order moratorium)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3(1), 45-86.
- 김진우 (2020).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재산법연구**, 37(1), 119-148.
- 동아일보(2020, 1, 20). 국내 '우한 폐렴' 확진자 첫 발생...우한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0/99322845/2>, 검색일 2020. 7. 5.
- 맹수석 (2020).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보험약관 및 보험법적 쟁점의 검토. **금융법연구**, 17(1), 155-190.
- 박한호 (2020). 사회적 재산과 범죄현상 분석: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범죄 사례와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6(2), 69-84.
- 유경동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앙과 과학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신학사상**, 189, 111-137.
- 윤성민 (2020).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 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 중심으로. **신학과실천**, 69, 67-89.
- 이무식 (2020).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과 위험소통에 대한 단상(斷想).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1), 103-107.
- 이승화, 김중명 (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유행의 대응과 치료.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10(2), 87-95.
- 하정우, 김창수 (2020). 바이러스 관광위기 극복을 위한 재산회복탄력성 탐색적 연구: '코로나 19'(COVID-19) 재난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5(2), 499-517.
- 홍민정, 오문향 (2020).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내 잠재 관광객의 감정 반응 연구: 의미론적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관광연구**, 35(3), 47-65.

- Black, D. (1970). Production of crime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733-748.
- Brantingham, P. J., & Brantingham, P. L. (2003). Anticipating the displacement of crime using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criminology. *Theory for Practice i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16, 119-148.
- Brantingham, P. L., & Brantingham, P. J. (1993). Nodes, paths, and edges: Considerations on the complex of crime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3-28.
- Brantingham, P. L., & Brantingham, P. J. (1999). A theoretical model of crime hot spot generation. *Studies on Crime & Crime Prevention*, 8(1), 7-26.
- Clarke, R. V., & Cornish, D. (1985). Modeling offender's decisions: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Crime &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6, 147-185.
- Cohen, L.,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ornish, D., & Clarke, R. V. (1986). *The reasoning crimin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Springer-Verlag.
- Mohler, G., Bertozzi, A. L., Carter, J., Short, M. B., Sledge, D., Tita, G. E., Uchida, C. D., & Brantingham, J. (2020). Impact of social distancing during COVID-19 Pandemic on crime in Los Angeles and Indianapoli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8, 101692.
- Pierce, G. L., Spaar, S. A., & Briggs IV, L. R. (1984). *The character of police work: Implications for the delivery of services*. Center for Applied Social Research, Northeastern University, Boston.
- Sherman, L., Gartin, P., & Buerger, M. (1989). Hot spots of predatory crime: Routine activities and the criminology of place. *Criminology*, 27, 27-55.

【Abstract】

The Impact of COVID-19 on Crime – Focused on 112 Report Data –

Lim, Hyungjin · Kim, Jeong Lim

This study examined what impact COVID-19 had on crime by using 112 report data. To that end, 112 report data for 42 months from January 2017 to June 2020 were collected. Time series graphs were used stepwise for the analysis in this study. The first step was to examine the overall trend of crime. The second step was to compare the monthly crime trends in the first half of 2017 to 2020. Finally, the third step was to analyze the monthly crime trends using the magnified graphs. Through these three step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OVID-19 transformed total crime, robbery, theft, and assaul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OVID-19 had a weak reduction effect on total crime, a weak increase effect on robbery, and a reduction effect on theft and assault. The weak increase effect on robbery caused by COVID-19 contradicts a U.S. research, which may be due to the difference in circumstanc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possible. First, according to criminology theory (opportunity theory), COVID-19 was expected to lead to a lot of crime reduction. But, it was not so. Therefore, government agenc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crime prevention, such as the police, need to closely analyze the causes and address them. Second, the impact of COVID-19 on crime varied from crime to crime.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the administrative power, such as the police, on those crimes that are increasing (e.g., robbery, domestic violence) in the situation of COVID-19.

Keywords: COVID-19, Total crime, Robbery, Theft, Assault